

한국 현대시에 있어서의 기독교 정신의 수용

— 김현승을 중심으로 —

박춘덕

I. 머리말

祈禱의 詩人이라고 불리어질 정도로 信仰에 充實했던 茶兄 김현승은 기독교 문학의 측면에서 볼 때 종교적 관념 때문에 경직되기 쉬운 윤리적 취약점을 잘 극복한 시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고독의 시인으로서 그 자신이 스스로 쌓은 자기만의 고독의 성이 있었지만 거기에만 국한되거나 안주하지 않고 인생의 전반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문제에 전념하므로써 이러한 종교적인 취약점은 해결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다형 김현승은 윤리적 측면으로 보면 양심을 노래한 휴머니스트요, 도덕적 시인으로 고뇌하는 인간의 지상 세계를 순례하기에 분주하여 진정한 이 땅의 실존주의자였음에 우리는 새롭게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¹⁾

김현승의 실존은 문학과 현실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으로

1) 李雲龍 편저, 「지상에서의 마지막 孤獨」(문학세계사, 1984), p. 141.

로서, 현실에 대한 문학의 대응관계가 우리에게 언제나 절실하게 느껴지는 이유를 김준오는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²⁾

첫째, 개화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문학이 역사적인 고난의 연속 가운데서 흘러 왔다. 둘째, 한국의 문학가는 전문적 예술가라기 보다 고대 서구 시인처럼 文學外的인 다양한 역할까지 겸해야 했다. 셋째, 비록 무능하고 비굴한 文學家일지라도 當代의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용감한 文學家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을 단순히 他山之石의 존재로만 볼 수 없다는 것 등이다.

여기서 다형 김현승 시인의 생애를 살펴 볼 때, 그는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고난을 잘 참고 견딘 시인 중의 한 사람이었고, 文學外的인 면에서 기독교의 독실한 신앙인으로서 독자적인 시세계를 펼쳐나간 시인임을 알 수 있다. 즉 김현승의 실존은, 실상은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신앙의 표현이었으며, 더 나아가 그의 시는 T.S. 엘리엇의 표현에 의한 二流詩로서의³⁾ 기독교시가 아니라 부정, 불의, 부패와 부조리, 불합리, 무질서, 비리 등이 난무하는 이 현실사회에 대한 고발정신을 결들인 참여시로서 승화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필자는 다른 논문⁴⁾ 통해 김현승 시 전체를 분석하여 그의 시에 나타난 기독교 사상을 살펴 보았다. 이것을 전제로 하여 본고에서는 그의 시 가운데서 사회참여 의식, 현실

2) 金俊五, 「詩論」(문장사, 1982), p. 243.

3) 梁注容, 「한국근대시연구」(삼영사, 1982), p. 283.

4) 줄고, “김현승 시에 있어서 어둠의 현상학”(한국문학논총 제5집, 1982)

참여 의식을 고취시킨 작품을 분석하여 그의 본래의 시정신인 기독교 사상과 현실참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살펴보고자 한다.

Ⅱ. 시의 기능과 참여문제

‘시인들은 왜 시를 짓고 독자들은 무엇때문에 그 시를 읽는가?’ 라는 문제는 시가 존재하던 때부터 논란이 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문학은 어떤 기능을 가졌고 어떠한 효용을 나타내는가 하는 문제로 확산되어 옛날부터 많은 문학론자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나름대로 강조해 왔다.

이러한 논쟁은 대체로 문학 교훈설과 문학 쾌락설로 나누어져 설명되어 왔는데, 전자는 문학이란 독자를 가르치고 교화시킨다는 즉 문학을 인식구조(cognitive structure)로 보는 입장이고, 후자는 문학이란 독자에게 즐거움을 주어 기쁘게 한다는 즉 문학을 미적구조(aesthetic structure)로 보는 입장의 대립인 것이다.⁵⁾ Warren은 「문학의 이론」에서 참다운 문학의 기능면에서 볼 때 敎示的 技能과 快樂的 기능은 서로 그 특색이 共存하면서 舍體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예술은 본질적으로는 아름답고 속성적으로는 진실한 것이다 (Art is substantively beautiful and adjectively true.).”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⁶⁾

즉 한 시인이 쓴 한 편의 시의 기능은 그 시를 읽는 독자에게 정신적인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인생에 대해서 진실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 때 진실이 무엇

5) 丘仁煥, 丘昌煥 共著, 「문학개론」(삼영사, 1976), p.39.

6) Wellek & Warren, *Theory of Literature*(Penguin Books, 1970), p.19.

인가를 지적하고 가르친다는 작업은 바로 시인에게 있어서 현실참여의 시를 쓰게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다. 물론 참여시와 순수시로 구분된 입장에서 볼 때 꼭 참여시가 진실을 얘기하고 순수시는 진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참여시로 표현되는 시들에서 우리는 진실과 역행되는 구체적인 표현들 즉 부정, 부패, 불합리, 부조리, 무질서, 비리 등의 불의에 관계되는 것들을 많이 지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참여시를 쓰게 될 때 너무 관념적인 표현에 기울게 되면 문학적인 향기는 줄어들고 작품 수준도 뒤떨어지게 마련이다. 즉 진정한 의미의 현실 참여시란 역사적 현실과 더불어 숨쉬면서 독자들에게 강한 예술성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茶兄 김현승의 경우 그의 현실 참여의 시들은 예술성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진실을 느끼게 해주는 공감을 준다. 이 점은 아마 그의 참여문학과 예술성에 관한 의견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공산주의 문학과 같은 目的文學을 배격하는 이유는 그 내용을 이루는 사상을 비판하고 배격하는 것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목적문학이 상투적으로 가지는 예술성의 빈곤과 결핍과 皆無에 있다. 만일 문학에서 사상이나 예술성의 어느 것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우리는 차라리 사상성을 버리고 예술성을 취해야 된다. 그만큼 문학의 생명은 예술성에 있다.⁷⁾

즉, 김현승은 학문의 임무와 문학의 임무를 구분하여, 학문의 임무는 인식시키는데 있지만 문학의 기능은 감동시키는데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하여 감동을 거쳐 스스로 인

7) 김현승, “참여문학의 眞意”(월간문학 25호, 1970. 11)

식에 도달하기 위하여 문학과 예술에는 완미한 형식이 불가결의 요소로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의 의견에 의하면 진정한 참여문학이란 불완전한 인간의 보다 근원적인 생명의 문제를 비평하기 위하여, 사회와 민족과 나아가서 인류에게 보다 사려깊고 보다 성실하게 개입하고 관여하는 문학이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와 땀으로 잡초 얽힌 대지를 깊이 갈아 파헤치듯이, 인간 생명의 근원을 속깊이 꿰뚫어 파헤쳐야 하는 그의 참여문학의 성격은 바로 김현승을 실존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실존의 추구가 다른 시인들의 그것과 다른 점은 근원적인 인간의 생명의 문제를 막연한 철학이나 다른 사상에서 찾지 않고 기독교 사상이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 즉 김현승 시에 나타난 현실 참여 문제는 기독교 사상이 근본적인 바탕이 된 것임으로 이 기독교 정신을 떠나서는 그의 현실참여 문제가 이해 될 수 없고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 점이 현실 참여의 시를 쓴 다른 시인들과 김현승 시인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Ⅲ. 김현승 시에 나타난 현실참여

러스킨은 예술의 고상한 감정을 열거하는 가운데 분노와 증오의 감정도 지적하고 있다. 물론 분노와 증오는 그것 자체는 분명히 고상한 감정이 아니지만, 분노할 곳에 바로 분노하고, 증오할 대상을 바로 찾아 증오하는 감정은 가장 고상한 감정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시인의 시가 잘못된 현실사회에 대해 올바른 분노와 증오의 감정으로 쓰여진 비

판적인 작품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시를 현실참여의 시라고 얘기한다. 물론 이 때 그 시인이 처한 현실적인 상황이 바로 투시되었는가, 또는 부조리한 불의의 사실이 압력으로 가해올 때 그것의 척결을 위해 용감했는가 하는 것은 그 시인의 현실사회를 바라보는 안목과도 관계가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非理와 壓制로부터 옹호하려는 예술보다 더 순수한 예술이 있을 수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인간다운 순수성을 지키는 그밖의 다른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러나 나를 포함한 한국의 작가들은 이러한 성질의 예술의 정치성에 관하여 얼마나 과감한가는 깊이 생각하여 보지 않을 수 없다. 나는 10년 동안 이러한 문학적 사명에 심화를 가져왔다고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술먹고 한숨쉬는 이야기로써, 섹스를 추구하는 감각으로써, 또는 자연이나 공중에 뜬 영원이나 회고를 노래함으로써, 혹은 동양적인 허무에 그렇게도 지칠 줄을 모르면서 나약한 순수 아닌 昏迷와 安逸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문학은 순수라는 미명아래 무력하고 패기없는 문학으로 反轉을 거듭하고 있음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⁸⁾

이것은 茶兄 김현승의 문학관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옹호하려는 그의 강한 의지가 뚜렷이 나타나 있다. 간혹 김현승 시인의 기독교 취향적인 <가을의 기도> 같은 작품만을 보고 그를 이상주의적 시인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극히 부분적이고 한정된 결론일 수 밖에 없다. 김현승은 시로써 올바른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와의 피나는 투쟁을 벌여왔다. 그리하여 우리 선조들의 吟風弄月의인 문학관에 대해 비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

8) 김현승, “왜 쓰는가?”(知性, 1972. 2.)

만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무력하고 패기있는 문학의 자리에서 과감하게 일어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가지 불의에 대한 증압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과감히 대결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둘레의 老大家들이 아무런 자각없이 연조로 버티거나 또는 자기류의 桃源境을 찾아 安住할 때 茶兄은 스스로 택한 苦行의 길을 준엄한 求道者의 자세로 걸어갔던 것이다.⁹⁾

말할 수 없는 모든 언어가
노래할 수 있는 모든 선택된 詞藻가
소통할 수 있는 모든 침묵들이
고갈하는 날,
나는 노래하련다!

모든 우리의 무형한 것들이 허물어지는 날
모든 그옥한 꽃향기들이 해체되는 날
모든 신앙들이 立證의 칼날 위에 서는 날,
나는 옹호자들을 노래하련다!

티끌과 상식으로 충만한 거리여,
數量의 허다한 신뢰자들이여,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는 길을
모든 사람들이 결론에 이르는 길을
바꾸어 나는 새삼 떠나련다!
아로사긴 象牙와 有限의 층계로는 미치지 못할
구름의 사다리로, 구름의 사다리로,
보다 광활한 영역을 나는 가련다!

9) 趙載勳, “茶兄 文學論 I”(승전어문학 제5집, 1976), p.193.

싸늘한 증류수의 시대여,
나는 나의 우울한 혈액순환을 노래하지 아니치 못하련
다.

날마다 날마다 아름다운 항거의 고요한 흐름 속에서
모든 약동하는 것들의 선율처럼
모든 전진하는 것들의 수레바퀴처럼
나와 같이 노래할 옹호자들이여,
나의 동지여, 오오, 나의 진실한 친구여!

-〈擁護者의 노래〉-

김현승의 초기시는 대체로 자연과의 친화에 의한 발랄한
상상과 청순한 동경의 세계를 노래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다
가 7-8년 간의 작품 공백기간을 거친 후에는 내적으로는 외
롭고 겸허한 기도의 시, 신앙적인 가을의 시들을 많이 발표
했고, 외적으로는 사회정의를 앞세운 작품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정의를 부르짖는 작품들은 현실
참여적인 요소를 많이 띄게 되었는데 그 현실참여의 시작을
보이는 것이 바로 〈擁護者의 노래〉인 것이다.

지금까지 인간 내적인 고민을 기도하는 자세로 겸허하게
표현하던 그의 시가 갑자기 감탄 부호가 매 연마다 들어가는
힘있는 작품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 시에 대한 茶兄
자신의 해설은 다음과 같다.

물질에 유린된 정신의 고귀를, 有形에 압도된 無形の
풍성함을, 量에 갇힌 質의 가치를, 실증보다 명확한 신앙

을 옹호하고 전진의 이름으로 후퇴를 거듭하는 현대의 경박을 규탄한다.¹⁰⁾

이 해설에 의하면 茶兄은 사회정의를 지키고 실천하려는 그의 실존주의자적인 강한 의지를 그의 시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모든’이라는 관사가 4연을 제외한 모든 연에서 열 번이나 반복된 것은 옹호자를 노래하겠다는 그의 진실된 속마음이 힘있게 나타난 모습이다. 그리고 ‘티끌과 상식으로 충만한 거리’, ‘數量の 허다한 신뢰자들’, ‘싸늘한 증류수의 시대’에 대항하는 그의 의지는 단순히 사회정의를 지키려는 신념에서 보다 더 발전하여 명확한 신앙을 옹호하려는 자세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 점은 茶兄 김현승이 모든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서 자유를 희망하며 정의를 요구하면서도 그 최종적인 귀착점은 神聖을 옹호하고 있는 그의 종교적인 올바른 자세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茶兄은 현실 참여적인 <擁護者の 노래>를 발표한 이후 1960년대에 이르러 현실사회의 문제를 다룬 시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다. 이것은 시인의 현실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는 참여정신의 문학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다.¹¹⁾ 즉 같은 참여의 정신이되 批評과 否定으로 기울어지는 문학과, 批評과 否定을 극복하고 새로운 모랄과 原理를 제시하려는 문학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했다. 다다이즘이나 對位法이나 30년대의 뉴·칸츄리파의 시는 전자의 특징을 나타내는 문학이고 초현실주의나 실존주의나 울리시즈와 같은 문학은 후자의 특징을 보여주는 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茶兄의 참여정신은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현실 참여에 대한

10) 김현승, “참여문학의 진의”

11) 김현승, 앞의 책.

그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한 詩人이나 作家가 그의 작품을 통하여 사회의 불합리나 不義를 비평하고 고발하는 것은 어떠한 先行된 목적이 있어서 그가 처하고 있는 사회를 파괴하고 혼란케 하려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生命에 대한 진실한 비평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창작행위인 것이다. 즉 어떻게 사는 것이 옳고 어떻게 사는 것이 그른가를 판단하여 보다 옳은 생활로 사회를 인도하기 위하여 작자의 창작행위는 그 순수한 주제를 에워싸고 집중되는 것이다.¹²⁾

여기서 ‘생명에 대한 진실한 비평’ ‘보다 옳은 생활로 사회를 인도하기 위하여’와 같은 표현은 기독교의 理想과 같은 관련을 맺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다형시에 나타난 현실 참여의 시들은 그 주제면에 있어서 참여시의 일반적인 개념인 不合理 · 不義 · 不正 · 不條理 · 非理 등에 대한 고발과 저항이 아니고 理想的 세계의 구현을 위한 正義와 自由를 시의 주제로 삼았다는 점이다.

봄빛이 스며드는 썩은 원수의 살더미 속에
彈痕을 헤치고 新生하는 금속의 거리와 광장들에
復活을 의미하는 참혹한 마지막 시간에
일으켜야 할 題目은
神聖과 自由이다.

救援을 호소하던 부다페스트-마지막 떨리던 音波들에
抗拒하는 平凡한 英雄들에
屈服을 모르는 亞細亞와 歐羅巴의 용감한 地獄들에

12) 김현승, 앞의 책.

일으켜야 할 動脈의 손길은
神聖과 自由의 힘이다.

보라, 피로 물든 江기슭에
이그러진 黃土 산비탈에
눈물로 세우는 모든 十字架의 경건한 題目도
그리고 들으라,
우리들의 온갖 사랑과 情熱과
모든 絶望과 몸부림과 싸움의 動機를 力說하여 주는
爆彈같은 외침도
神聖과 自由이다.

오오, 地上의 가장 아름다운 收穫
너를 위하여 흘릴 우리들의 피는
아직도 東西南北에 넉넉히 출렁이고 있다.
意慾은 出發의 북소리처럼 팽창하고,
새 아침이 열리는 곳- 굽이도는 海岸線과 저 山脈들
그리고 아득한 地平線마다
그윽이 울리는 生命있는 것들의 숨소리도 그러하다!

- 〈神聖과 自由를〉 1, 5, 8, 9연 -

이 시에서 다형은 전재의 참혹한 소용돌이 속에서 서로
목숨을 겨누어 총을 쏘야만 했던 우리 민족의 그 살벌하고
비참했던 피문은 역사를 고발하고 있다. 그리고 혈벗은 핏빛
黃土의 가난한 우리 땅에 사랑을 바탕으로 세우는 십자가는
바로 '神聖'이며 우리들의 사랑과 열정, 또는 절망과 몸부림

등의 절규는 바로 ‘自由’에 근원하는 것이라고 외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작품은 세계인에게 호소하는 메시지적 정열로 이루어져 있는데 온 인류를 향한 박애사상의 신성과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의 ‘神聖’과 ‘自由’는 별개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를 의미한다는 것은 신약성경의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¹³⁾

이러한 ‘自由’는 계속되는 그의 시구절 속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당신을 모르고 生命의 즐기찬 더운 피를 모르는,
그것들의 슬픔이나 괴로움은 더군다나 아지 못하는,
저 피 묻은 붉은 발톱 아래
저 自由를 움켜쥐는 톱니바퀴 속에
결단코 결단코 휘몰려 들어가 버리지는 않을,
세에느江가 어느 화려한 都心보다도
우크라이나의 어느 기름진 밀밭보다도
여기는 우리에게 더 살이 되는 땅 - 갈라지고 찢기우

13) 신약성경, 요한복음 8:31~32, 갈라디아서 5:1

고 허물어진

우리의 祖國이로소이다!

그를 축복하소서!

그로 하여금 옷 입듯 당신의 가없는 智慧 가운데 젖게
하소서,

그로 하여금 렉키山脈에 피는 장미꽃과 北岳山에 지는
진달래꽃의 아름다움이 다르지 않음을 알게 하소서.

빛깔과 모습은 당신이 지으신 대로 서로이 다르나

그 心臟에 넘치는 붉은 피마저 다르오리까,

自由를 사랑하는 最善과 最後마저 마르오리까

그로 하여금 와서 眞理의 所在를 밝히 보게 하소서!

- <1960년의 戀歌> 3,6연 -

우리의 祖國은 둘이며 하나이다.

自由와 그에의 哀愁!

우리는 일어섰다. 四月이 지나간 六月에도,

북소리와 같이 멀리서도 들리는

우리네 젊은 心臟의 鼓動,

그리고 題目은 오직 하나 - 微笑하는 손짓과

우리네 하늘에 自由로이 날으는

얼든 生命 있는 것들의 우짚음과

먼 산동에까지 울리는 그리운 共鳴의 메아리를 위하

여...

우리는 일어섰다!

쓰라린 눈물과 어제 위에 남긴 同志들의 발자국 -
自由에의 거치른 里程碑와
해마다 피어나는 피빛 진달래 - 그네들의 復活과
그네를 지키는 天國의 영원한 그네의 祖國을 위하여

- <우리는 일어섰다> 1,3,4연 -

대체적으로 김현승의 현실참여의 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6.25의 비극을 대상으로 한 작품으로는 <신성과 자유를> <슬픈 아버지> <내마음 흩이되어> 등이 되겠고, 둘째로 4.19의 정의를 대상으로 한 작품으로는 <우리는 일어섰다> <1960년의 戀歌> <누가 우리의 참 스승인가> 등이 그것이다.

최하림은 기독교적인 시들이 관념적인 세계를 추구하다가 메마름에 빠져 들어가 버리는 데 비하여 김현승의 사회시들은 매우 다정하고 독자들의 가슴에 직소하는 효과를 발휘한다¹⁴⁾고 지적하고 있다.

아버지는 흙벽을 핥으며 자랐고
너는 外人部隊의 醬湯을 가지고 노는구나!
라이프誌에는 오늘도
장난감 없는 나라의 아기야, 네 이야기가 쓰여져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아들인 내 사랑하는 아기야,
너는 로우마의 廢墟와 히로시마의 티끌 위에서 덩구는
한날 깨어져 버린 장난감! 金屬性의 破片들을 사랑하기

14) 崔夏林, “垂直的인 世界”(창작과 비평 36호, 1975), p.182.

전

너는 먼저 저 自然의 玩具들을 사랑할 줄을 알아라!

저 구름을 보아라, 저 구름 넘어 더욱 빛나는 얼굴들을
너는 보았느냐,

저 무지개를 보아라, 저 成門 밖에 열린 더욱 황홀한 나
라들을 너는 보았느냐,

저 새소리를 들으라, 저 노래소리보다 더욱 약동하는
새로운 指揮者의 呼吸소리가 네 귀에는 들리지 않느냐,

저 아지랑이를 보아라, 저 아지랑이보다 더 그윽한
永遠의 時間들이 네 눈앞에는 바라다 보이지 않느냐,

저 아름다운 온갖 自然의 선물 가운데는

아기야, 네가 그렇게 밤낮으로 조르던 그 트로이城의 木
馬도,

그 煙筒 고운 蒸氣船도, Z機도,

그리고 그보다 몇 百位나 되는 더 많은 장난감들이 저절
로 담겨져 있느니라.

아니, 우리가 모은 이 모든 制限된 寶貨를 저 自然의 풍
성한 울안에 들이면,

그것은 땅에 떨어진 한낱 작은 이삭들에 지나지 않느니
라!

뿐만 아니다, 그것들은 깨어지지도 쭈그러지지도 아니하
며,

沈沒하지도 그리고 侵略에 쓰이지도 아니하는,

보다 堅固한 玩具들이 저 自然의 품안에는

언제나 언제나 새살 돌아나며 있느니라.

- <슬픈 아버지> 1, 4, 5연 -

인간의 父情을 원숙한 설득력의 표현으로 구사하고 있는 이 작품은 일제의 압박과 수탈의 가난 속에서 자라온 세대의 아버지가 물려주지 아니했어야 할 전쟁과 가난의 유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자식을 보고 어쩔 수 없는 자신의 無能을 한탄하고 있는 노래이다. 장난감을 사주지 못해 신이 창조한 자연이 인공의 장난감보다 위대한 것이라고 설득시키고는 있지만, 기묘하게도 외인부대의 깡통을 가지고 노는 한국 아이의 비참한 정경이 외국잡지에 보도 되었을 때 미국잡지에 실린 한국의 아이, 미국 완구와 한국의 자연이 대칭되어 이 시가 담고 있는 비애를 한층 더 실감있게 묘사해 주고 있다. 장난감을 사주지 못하는 슬픈 아버지가 동양적 전통속에서 위대한 상징적 역할을 하고 있는 자연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그것을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 수 없는 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직은 좀더 외로웁고 슬퍼야 하는구나!'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침몰하지도 침략에 쓰이지도 않는 自然의 '堅固한玩具'를 사랑하라고 타이르는 아버지의 쓰라린 마음과 외로움은 바로 가난에 의해 수난받은 조국과 겨레에의 사랑을 나타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다름아닌 기독교의 박애사상과 통하는 것이다.

IV. 기독교 정신과 박애사상

이상과 같은 茶兄의 현실참여의 시들을 살펴볼 때 그 밑바탕에 흐르는 근원적인 사상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있음을 感得할 수 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올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15)

즉 茶兄은 그의 작품세계를 통해 기독교의 근본정신인 박애사상을 나타냄으로써 해서 혼란과 무질서가 난무하고 사랑이 메말라 있는 이 현실 사회를 理想的인 세계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또한 茶兄의 현실참여의 시작품에서는 '어둠'에 관계되는 시어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이 현실사회는 천상의 밝은 세계와 대립되는 바로 어둠의 세계인 까닭이다.¹⁵⁾ 그러므로 茶兄은 그의 현실참여의 시를 통해서 이 사회의 혼란, 무질서, 불의, 부정 등을 통렬하게 비판했던 것이다. 비판으로만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는 그의 작품을 통해 기독교의 근본정신인 박애사상을 나타내어, 사랑이 메말라 있는 이 어둠의 세계인 현실사회를 천상의 밝은 세계인 理想세계로 이끌려고 노력했다. 이것은 茶兄이 기독교 정신에 투철한 가운데 詩作에 임했음을 입증하는 사실이다.

V. 맺음말

기독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기독교적인 가

15) 신약성경, 로마서 12 : 15, 누가복음 4 : 18~19.

16)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 : 4~6.

정교육을 받았고 서양 선교사와 접촉이 많았으며, 기독교 문화 속에서 성장하고 또 커피를 너무 좋아하게 되어 자기의 호를 스스로 茶兄이라고 붙이기까지 했던 김현승.

그러므로 그의 시는 자연히 한국의 전통이나 토속과는 거리가 있는 서구적 스타일이 체질화되면서 그 사상성도 서구의 정신적인 지주인 기독교의 정신을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고에서는 그의 현실참여적인 시들을 분석하여 그의 시정신의 원류인 기독교 정신과 어떻게 연결되며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결국 김현승의 참여정신은 새로운 모랄과 원리를 제시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여기서 새로운 모랄과 원리는 기독교 理想과 깊은 관련을 맺게 되어 박애정신으로 승화되고 있음을 그의 시작품을 통해 알 수 있었다.